손에 쥐고 먹는 '통갈비' 그 추억의 맛 속으로

당찬 맛집을 찾아서

<204> 제주섬돈

육질 부드러운 제주산 암퇘지 사용
등갈비와 또 다른 식감이 입맛 잡아
신선한 고기에 착한 가격으로 승부
점심 특선 뼈다귀해장국 등도 별미

돼지고기는 오래전부터 한국인이 대표로 꼽는 외식 메뉴다. 가족외식과 직장인들의 회식 단골메뉴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산 암퇘지의 육질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당찬 맛집이 있다. 제주시 삼무공원 인근에 소재한 '제주섬돈'이다.

이곳은 제주산 암퇘지만을 사용하며 착한 가격으로 경쟁하는 제주 고깃집이다. 암퇘지는 일반 거세 돼지고기보다 근섬유질이 가늘어 육질이 부드럽고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적어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섬돈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통갈비는 돼지가슴에서부터 시작되는 갈비로, 일반 돼지 등갈비와 식감이 사뭇 다르다.

통갈비는 강한불에 한번 초벌 된 뒤 손님상에 내어진다. 불판위에 올려진 큼지막한 통갈비 한 덩어리는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불판 위에서 어느 정도 구워진 통갈비는 입맛대로 손질해 먹을 수 있다. 손질할 때 갈비 결을 따라 가위로 자르면 어렵지 않게 손질할 수 있다.

그렇게 불판위에서 5분 정도 구운 통갈비를 살을 발라 먹거나 손으로 직접 잡아 뜯어먹으면 되는데 어릴 적 깡통 위에서 구워 먹던 추억의 갈비맛이다. 통갈비는 뜯어먹는 재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족 메뉴로 찾는 이들이 많다고 주인장은 설명했다. 갈비에서 발라낸 살코기를 자글자글 끓여진 제주 멸치젓에 찍어 풋고추와 마늘을 가미해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섬돈만의 독특한 갈비맛이 탄생한다.

섬돈에서는 통갈비 외에도 오겹살, 목살도 맛볼 수 있는데 모두 냉장으로 받은 제주산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신선함 그대로다. 양념 매니아를 위해 양념갈비도 준비돼 있다.

또한 섬돈에서는 고기를 주문하면 초벌한 돼지 껍데기가 서비스로 나온다. 냉동 껍데기가 아니라 생 껍데기로 보다 담백하면서 껍데기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별미다.

고기만 먹다 보면 자칫 느끼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주인장의 특제양념장이 들어가는 냉면이나 시원한 육수에 생고기로 끓인 얼큰한 김치찌개로 풀어주면 된다.

섬돈의 주인장 김현석(33) 대표는 개업하기 전 고깃집에서 10여년동안 일을 해오며 돼지고기의 품질과 손님들의 요구하는 맛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섬돈의 음식 하나 하나의 맛의 세심함은 음식의 질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김 대표의 자부심으로도 볼 수 있다.

함께 제공되는 밑반찬.

점심식사도 가능하다. 점심에는 뼈다귀해장국, 접짝뼈국, 두루치기, 김치찌개 등이 주 메뉴다. 접짝뼈국은 사골의 깊은 국물맛이 일품이다.

이와 함께 섬돈은 아늑한 실내공간으로 마련돼 전체적으로 카페 느낌의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이 때문에 회식, 가족모임 등 각종 모임과 데이트 코스에도 안성맞춤이다. 단체인 경우 예약은 필수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이며, 브레이크타임은 오후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이다.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3길 46 제주섬돈(064-744-3346).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영화觀

언택트 시대의 컨택트

모두에게 어려운 매일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걱정스러운 시국에 더해 긴 장마 끝에 찾아온 태풍의 반갑지 않은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어느덧 9월인데 돌아보면 2020년 한 해는 참으로 지난했다.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는 말이 금지어가 될 줄은 1년 전만해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오늘은 어느 커피숍의 의자들이 모두 뒤집혀 테이블 위에 올라간 것을 보았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 커피숍의 모습은 생경했다. 마스크를 쓰고라도 고통과 고민을 나누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서 누구를 찾을 것인가. 쓸쓸하고 슬픈, 잊혀지지 않을 그림이었다.

나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나 친구가 되는 영화들을 좋아한다. 낯설고 어색한 첫 만남의 시간을 지나 서로를 궁금해하고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결국은 친구 또는 우리라고 명명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영화들 말이다. 특히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체의 만남을 영화로 마주할 때 그 낯선 풍경이 주는 아름다움에 쉽게 미혹되곤 한다. 대부분 그런 작품들은 가족 영화나 애니메이션 장르로 만들어지곤 하는데 그래서일까 자극은 적고 영상은 아름답고 감동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다.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마주보는 일이 힘들어진 지금, 그런 교감을 보여주는 작품을 떠올려본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1984년작 'E.T'다. 어린 시절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마 감동이나 감격이라는 단어를 쓸 줄 모르는 때여서 눈물로 대신했던 것 같다. 무리에서 홀로 떨어진 외계인 E.T와 인간 소년 엘리어트의 만남은 동화 같았다. 동화의 캔버스에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적 순간을 차곡차곡 더해 놓았으니 이 작품을 본 순간의 교감을 잊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 역시 사랑스러운 교감의 순간들을 보여준다. 이 영화 역시 내게는 눈물 지뢰이기도 하다. 영원한 친구가 된 히컵과 투슬리스의 모험과 우정을 다룬 씩씩한 이 작품은 핸디캡을 지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서사를 가지고 있다. 장애를 가진 소년과 이빨이 없는 검은 용의 우정은 말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종의 간극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 둘이 함께하던 자유로운 비행 장면은 볼 때마다 뭉클한 쾌감을 전해주는 명장면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역시 어린이들의 마음과 낯선 생명체들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을 신록처럼 푸르른 감동으로 만들어낸 명작이다.

영화 'E.T'의 한 장면.

글을 쓰다 보니 더 많은 작품들이 머릿 속과 가슴 속을 스쳐 지나간다. 최근 감상한 작품인 개와 인간의 우정을 그린 '콜 오브 와일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블럭버스터 '토르', 정글에서 런던으로 온 귀여운 곰의 감동적인 이야기 '패딩턴' 등 한 둘이 아니다. '다행이다 영화는 계속 이렇게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며 안도를 한다.

얼마 전 좋아하는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이 험난한 시국에 만날 수 없어도 우리는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자고 응원과 위로를 전하는 몇 안되는 글자를 한참 쳐다보았다. 그래 친구야 만날 수 없어도 느낌이 중요해.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게 더 잦은 외출을 허락해 줄 때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